



#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강 신 목  
〈새생각회 회장〉

## 말 시계, 안전양말

완구같기도 하고 시계이기도 한 말시계<그림 1>는 말울음소리에 말발굽 소리가 크고 작게, 빠르고 느리게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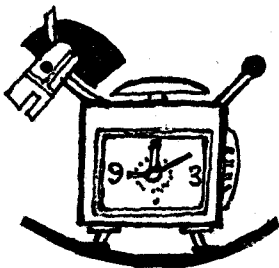
말갈기와 눈은 점정, 입과 귀는 노랑, 꼬리 끝과 다리는 빨강, 스위치와 스피커는 주황, 몸체는 하늘색, 발은 초록이며 흔들의자처럼 만들었다.

시계의 기능과 완구의 효과의 절묘한 만남으로 수준높고 기발한 발명이다.

막 걷기 시작한 아기가 미끄러운 방바닥에서 자주 넘어지는 것이 안스러워 젊은 어머니가 고안한 안전양말<그림 2>을 사랑이 넣은 훌륭한 발명이다.

심하게 넘어지면 다치기도 하고 또 자주 넘어지면 걷는 것이 두려워지는 마음을 없애고 자 양말바닥에 끈끈이를 몇 개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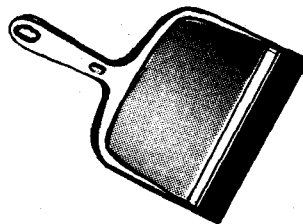
걱정을 해결하면 발명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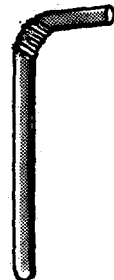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 고무 쓰레받기, 주름관 빨대

작은 먼지는 좀처럼 쓸어 달기 힘든데 쓰레받기 끝에 유연한 고무띠를 붙인 고무 쓰레받기<그림 3>는 아주 편하다. 플라스틱 쓰레받기든 방바닥에 밀착시키려고 애 쓰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지만 해결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적다. 해결해 보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발명이 태어나게 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다고 했다. 앓을 수 없는 환자가 누워서 물을 마시기란 여간 고역이 아니다.

빨대의 한 쪽에 주름을 넣은 주름 빨대<그림 4>는 누운 환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고개를 든 채 잔을 기울이지 않고도 편하게 마실 수 있게 했다.

하늘 아래 완전 무결한 것은 없다고 했듯이. 어떤 발명품도 완전 무결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발명은 한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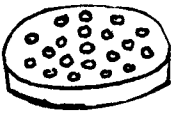
## 착화탄, 철조망

연탄에 불붙이려고 고생해보지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밀볼로 신문지를 구겨 넣고, 장작을 잘게 패서 석유까지 뿌려가며 눈물을 흘려가며 겨우 연탄에 불붙였던 어려움을 착화탄<그림 5>으로 손쉽게 착화시키게 했다.

어찌나 쉽게 착화시킬 수 있었던지 번개탄이란 애칭까지 얻게 됐으니 기발하다. 너무나 유명한 철조망<그림 6>은 나이 어린 목동인 조셉소년의 발명을 모른다면 자본주의국의 국민으론 모자란다. 목장 울타리용으로 태어난 철조망이 전쟁용으로 쓰여져 특허기간 동안에 번돈이 11사람의 회계사가 1년동안 걸려 조사해도 다 못했다니 놀랍다.

돈 벌이가 안되는 발명으로 오래오래 발명할 수 있겠는가! 빈자는 소인이다.



<그림 5>



<그림 6>

## 가까운 것부터

우주선, 비행기, 잠수함따위는 개인발명가의 발명거리론 어렵도 없다.

개인의 능력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시계나 양말따위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 발명감으로 알맞다.

발명은 가까운 곳부터 차츰 먼 곳으로 넓혀가야 성공하기 쉽다.

세상만사는 욕심으로 되지않고 차분하게 다녀나가야만 다루어지는 것이다.

순서를 어기면 무리가 따르고 무리가 따르면 어떤 일도 제대로 될 수 없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알맞은 발명거리를 찾아야 성공할 수 있다.

## 조그만 것부터

무한동력, 불로장생약, 연금술처럼 엄청난 발명감은 개인 발명가로선 결코 손대선 안되며, 공동발명으로도 불가능한 발명감이다.

못난 소인은 큰 것만 쳐다보다가 세월만 보내고, 훌륭한 위인은 조그만 일부터 한다고 한다.

실패만 거듭하는 낙제발명가는 능력이상의 거창한 발명감을 붙들고 늘어진다. 성공발명을 하려면 능력보다 조금 낮은 발명감을 골라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지나쳐서 좋은 것은 없다. 분수에 맞는 발명으로 대성하자.

## 손쉬운 것부터

초심발명가는 종이와 볼펜만으로도 할 수 있는 손쉬운 발명부터 하라.

주름빨대의 주름관은 실용화된 것, 그러니 실험은 안해도 되고, 빨대를 주름만 그것도 조금만 넣으면 되니 손쉬울 수 밖에. 이것이 발명성공의 지금길이다. 가령 비행기 엔진을 개량한다면 제작비, 실험기간, 그리고 비행기도 하나 사야 하겠으니 꿈도 꾸어선 안되겠다. 개인의 힘과 조직의 힘은 다른 것. 외롭고 비약한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 너 자신을 알라는 말처럼 발명가야말로 나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

## 꼭 팔릴 것부터

발명품은 발명가 혼자 쓰려 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함께 쓰는 것이라면 꼭 쓰일 것을 발명해야 한다.

발명가와 기업은 꼭 팔릴 것을 발명하고 만드는 안목과 선택이 필요하다. 꼭 써야할 발명기라면 많이 팔릴 것이고 많이 팔리면 돈벌이는 될 것이다. 돈벌이가 안되는 발명을 아무리 한들, 아니 많이 하면 할수록 빈곤의 구렁에 빠져 들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발명감의 올바른 선택이야 말고 발명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 모두 번창하는 길이다. 고르고 고르고 고르자. <♣>